

K-소비재, 해외시장 맞춤형 공략 뷰티·푸드 등 ‘이커머스 수출’ 박차

산업부·코트라, 소비재 수출대전
美·日·동남아 바이어 200곳 초청
美 면세 폐지로 韓 제품 경쟁력 강화
현장계약 26건, 550만弗 규모 성과
할랄·프랜차이즈 신시장 개척 박차

정부가 K-푸드와 K-뷰티 등 유망 소비재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방위 수출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5일~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K-Lifestyle Showcase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 300여 개사와 해외 바이어 2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액은 총 10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K-뷰티와 K-푸드는 각각 26억달러, 29억달러를 수출하며 전년 대비 9%, 4% 성장했다.

이러한 수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 행사장에는 ‘K-뷰티’, ‘K-푸드’, ‘K-생활용품’ 쇼케이스관을 운영하고, 해외 바이어와 1대 1 수출상담을 2000건 이상 진행한다.

유통망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특화관도 운영된다. ‘유통망관’에서는 아마존과 협력해 미국 온라인 수출을 지원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중국 홍콩발 소매 수입 면세 혜택(미소기준, deminimis)’ 폐지 조치로 한국산 제품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4월 15일~16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K-Lifestyle Showcase 2025)’을 개최한다. 사진은 코엑스에 마련된 전시장 모습. /코트라

고 있다. 또 쇼피, 이베이재팬, 틱톡과 협력해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 이커머스 수출도 함께 지원한다.

‘할랄관’에서는 국내 할랄 인증 기업과 바이어 간 상담을 주선하고, 국내에서 인정된 기관에서 해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호 인증 인정 제도인 ‘국내 교차인증’을 기반으로 약 20억 명 규모의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을 돕는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프랜차이즈, 에듀테크, 콘텐츠 등 수출 유망 업종 100여개사가 참가해 400건 이상의 B2B 상담을 진행한다. 한류 콘텐츠 인지도가 높은 만큼, 프랜차이즈 식품 체험, 에듀테크 시연, 애니메이션·캐릭터·웹툰 등 콘텐츠 상담도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해외 바이어 전용 공간인 ‘바이어라운지’에서는 34개국 200개 바이어가 한국 프랜차이즈 식품을 체험하고 리뷰를 공유해 우리 기업이 해외 소비자 입맛과 취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트라는 통상 애로 접수 및 관세 대

응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119관’과 코트라 수출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코트라 수출상담관’, 수출 경험이 부족한 내수·수출초보기업과 전문무역상사를 연결하는 ‘전문무역상사관’ 등 부스를 운영한다. 그 결과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현재까지 현장에서 총 26건, 550만달러 규모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A사는 지난해 코트라 지원으로 일본에 1호점을 개점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호주·몽골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한다. A사는 “지난해 바이어 라운지 참가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번 상담도 추가적인 시장개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행사가 변화하는 세계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확대에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라이프스타일의 세계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산 쌀, 뉴질랜드 수출 길 열려

농림축산검역본부
뉴질랜드 수출시 검역증명서 불필요

이달부터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이 한결 수월해진다.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국산 쌀 인기는 2020년대 들어 부쩍 높아졌고, 이는 국내 공급과잉 완화 측면에서도 고무적이다. 우리 쌀은 현재 4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선적 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에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 정부가 이달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뉴질랜드 도착 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0일 서울에서 신디 매케인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만나 쌀 식량원조, 개도국 학교급식 지원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

수입검역이 생략된다.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검역본부는 기대했다.

국산 쌀의 수출 대상지 수는 총 48개국이다. 이중 뉴질랜드 현지에서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를 얻으면서 2020년대 들어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

초미세먼지 농도, 전년대비 약 3% 개선

환경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발표

이번 동절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대비 3% 넘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과 광주, 울산, 제주 지역 등은 지난해보다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작년 12월 1일~올해 3월 31일)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가 20.3 $\mu\text{g}/\text{m}^3$ 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제5차 평균 농도(21.0 $\mu\text{g}/\text{m}^3$) 대비 3.3% 감소한 수치다. 또 지난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이다.

계절관리제는 환경부가 매년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 오염물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올해 6번째 시행됐다.

분석 결과를 보면 ‘좋음’(15 $\mu\text{g}/\text{m}^3$ 이하) 등급 일수는 7일 증가(47일→54일)했다. ‘나쁨’(36 $\mu\text{g}/\text{m}^3$ 이상) 등급 일수는 3일 감소(15일→12일)하는 등 대기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다만 대기 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1회 증가(2일→3일)하는 등 부분적으로 악화된 날도 있

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경남, 충남, 대구, 세종 등 11개 시도는 평균 농도가 0.8%~10.9% 좋아진 반면 울산, 제주, 서울 등 6개 시도는 1.1%~7.9% 악화되는 등 편차도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5차 22.8 $\mu\text{g}/\text{m}^3$ 에서 6차 24.3 $\mu\text{g}/\text{m}^3$ 으로 농도가 6.5% 짙어졌다.

앞서 정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봄철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간(2월 27일~3월 31일)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석탄발전 부문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최대 30기를 일시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 조치가 시행됐다.

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행정·공공기관 소유의 4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로 일평균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399건으로, 전년대비 43.7%(310건) 감소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영농 잔재물 파쇄기를 지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출기업 인증 동향·대응전략 공유

국표원 등 전문가 1대 1 현장 상담 진행

정부가 경제부처 합동으로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 등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5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인증 관련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해외인증 설명회와 1대 1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도권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품목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 문의가 많은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의 최신 인증 동향, 심사 절차, 서류 작성 등 실무중심 정보와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 현장에서 해외인증 전문가가 사전 신청한 기업과 1대 1 맞춤 상담을 지원했다.

설명회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5월 8일), 대구·경북권(6월 4일), 부산·

울산·경남권(6월 25일), 전라권(7월 16일)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IT·전기전자, 섬유, 기계·조선, 화학물질 등 지역별 주력 수출 품목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권역별 맞춤형 인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신정부의 상호관세 강화 등으로 인해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을 비롯해 E U(유럽연합), 중국, 동남아, 중동 등 다양한 권역의 인증 동향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 전용길 부단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 고금리·환율 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 과열의 3각 파고가 겹쳐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표원은 산업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비스·금융 분야 협정논의 본격화

한·중 FTA 11차 후속협상 개시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금융 후속협상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15일~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제11차 한중 FTA 후속협상이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제10차 공식협상은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중국 측 린 핑(Lin Feng) 중국 상무부 국제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40여 명의 양국 대

표단이 참여한다.

양국은 2015년 FTA 협정 체결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해, 10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 협정이 우리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산업단지 자율제조 확산

AI·로봇도입 지원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자율제조 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끌어모은다. 산업부는 15일 대구에서 산업단지와 로봇산업을 대표하는 4대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한국로봇산업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수요기업과 제조로봇 공급기업이 함께하는 세미나와 매칭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제조업 생산의 63%를 차지하고 약 12만 개의 기업이 집적된 공간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산업 경쟁력과 수출 역량을 갖추려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율제조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같은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협약에 따라 ▲입주기업의 로봇 도입 지원 ▲로봇 도입 관련 정책 및 사업 협력 ▲로봇 도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